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서밋백텔 국립공원에서 열린 제24회 북미세계잼버리 폐영식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함중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권익현 부안군수가 무대에 올라 차기 잼버리 개최지인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이양받고 힘차게 흔들고 있다.

## 새만금 세계잼버리 '카운트 다운'

송하진 도지사, 북미잼버리 폐영식 무대에서 대회기 이양 받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맞아 대회 성공 전폭 지원 요청  
도, 9~12일 '새만금 국제청소년캠퍼리' 열어 분위기 고취

미국을 방문 중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북미세계잼버리 대회 폐영식에서 세계잼버리 대회기를 건네받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공식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지사는 1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북미 세계 잼버리 폐영식 무대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함중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함께 세계잼버리 대회기를 이양 받았다.

송하진 지사는 권익현 군수, 함중한 총재와 함께 무대 위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기를 흔들며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차기 개최지인 전북도의 공식 활동을 알리고 동시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다짐했다.

특히 송하진 지사는 이날 잼버리 대회장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세계스카우트연맹 크레이그 튜르피에(Craig Turpie) 의장, 아마드 알헨다위(Ahmad Alhendawi)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 전통 한지로 만든 스카우트 향건(스카프)을 선물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감사함을 포함과 동시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북미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 기대와 함께 4년 뒤 새만금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마지막까지 우의를 다졌다.

지난달 22일 시작돼 12일간의 일정을

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서밋백텔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제24회 북미세계 잼버리 대회에는 152개국에서 4만15천여 명의 글로벌 청소년 리더들이 참여해 야영 대축제를 펼쳤다.

폐영식을 끝으로 15박16일의 일정을 마친 전북도 북미세계잼버리 스태프팀 총괄 김주영 잼버리 콘텐츠팀장은 "이번 스태프팀 활동은 세계잼버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전북도와 여건은 다르겠지만 이곳에서의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폐영식에 하루 앞선 지난달 31일 송하진 지사 일행은 북미세계잼버리 현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한민국 리셉션'에 참석해 세계 각국 스카우트 주요 인사들에게 새만금 잼버리를 알리고 우호를 다지기도 했다.

리셉션은 전북도립국악원의 사전공연, 개회식, 인사말, 2023 잼버리 홍보,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지사, 윤호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권익현

부안군수, 문승우·이명연·최훈열 도의원, 김병수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장, 함중한 총재 등을 비롯해 주요 마케팅 대상 국가 70여 개국 국제 스카우트 주요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해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화이부동의 마음으로 각 기관단체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2023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곳에 모인 해외스카우트 연맹 핵심 지도자 여러분과 4년 뒤에 새만금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마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세계 최장 방조제 기네스 기록(33.9km)을 갖고 있는 새만금에서 산, 들, 바다, 갯벌을 관광활동장 삼아 도전과 개척의 스카우트 정신이 표출될 것이다"고 화답하며 "2023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간 50개국에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새만금 국제청소년캠퍼리'를 열어 새만금 잼버리 분위기를 고취 시키려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 도, 기업 피해 총력 대응

전북도가 지난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 제외 결정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과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그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하여 도내 주력산업의 현황과 피해 예상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전북도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뿌리기술, 화학, 탄소, 전자부품, 자동차, 조선 등 도내 주력산업 관련 기업 1344곳을 대상으로 일본산(産) 핵심소재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3.5%에 해당하는 47개 사(社)가 일본산 소재·부품을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품 수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활동도 펼친다.

그리고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을 지원 하는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장기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맞춰 탄소, 뿌리기술, 자동차부품 등 도내 주력산업의 소재, 부품의 국산화 지원과 장비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는 한일 갈등, 미중 무역분쟁 등 불안한 통상여건을 극복하고 도내 기업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

주력산업기업 중 일본소재 사용 기업 3.5%  
자동차·조선업은 국내 제품으로 대체 가능  
대체 소재 수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시행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소재를 사용하는 도내 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고 기업들도 주요품목별로 3개월에서 가장 12개월까지 소재·부품을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등 현재까지 수출규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와 조선 분야는 일부 업체에서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제품으로 대부분 대체가 가능하여 영향이 적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면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과 전북경제 체질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지원 대책을 즉각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규제 장기화에 따른 기업 소재부품 재고 확보 활동과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대체 소재 수급에 총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다. 도와 전북경제통상원, 전북

해 추진한다.

대(對) 일본 수출품에 대한 일본 내 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신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통상거점센터(신남방(인도), 중국(강소성), 신북방(러시아)으로 확대하고, '전북형수출바우처'를 개선해 초보·유망·선도기업 등 수출규모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고, 지원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잼버리 대회 참석 차 방미 중인 송하진 도지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을 접한 즉시 현지에서 긴급 메시지를 통해 "냉철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철저히 대응해 국가경쟁력과 전북 경제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라며 "기업 뿐 아니라 파프리카와 김, 김치 등 도내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여 도내 농가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